"문학, 마음 속 등불…복지·공동체 언어로 풀 것"

김용권 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

현대문예 신인상 시·시조 부분 당선
자연의 변화와 내면의 울림 담아내
"등단 시작, 문학 본령에 충실할 것"

"문학은 제게 오래도록 마음속에서만 빛나던 등불이었습니다. 삶의 언저리에서,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조차 그 불빛은 꺼지지 않고 조용히 제 안을 밝혀줬습니다."

김용권 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이 국내 유수의 문예지인 '현대문예'에서 주관하는 신인상에 시·시조 부문에 당선되며 문단에 공식 등단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이사장의 오랜 문학적 성찰과 삶의 깊이가 담긴 작품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문학과 사회복지를 아우른 그의 독창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그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기 위해 글로 마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놀랍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 기쁨을 가족에게 바치며, 삶의 모든 순간에도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이번 당선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문학의 본령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대문예 신인 작품상 시·시조 부문에 '빛방울의 질문', '무등산 잠언-오월의 언덕에서', '비 그친 뒤 운암산', '운암산, 비의 숨결' 등을 출품했다.

작품에는 운암산, 무등산 등 광주지역 자연을 배경으로 과거의 감정을 조용히 되새기는 시인의 정서가 섬세하게 담겼다. 역사적 아픔을 자연 풍경과 겹쳐 표현함으로써, 망각에 대한 경계와 기억의 중요성을 담담하게 전한다. 또 고요한 산길에서 자연의 섬세한 변화와 내면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시어들은 마음의 평안을 안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으며, 전남대학교 겸임교수 국제학 박사로써 학문적 깊이와 현장 실천을 통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 이사장은 문학과 복지,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더 깊이 있는 언어로 풀어내며, 독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제265회 산학협동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키우리, 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은 18일 오전 7시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 12층에서 회원 및 광주전남지역 학계·기관·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6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포럼에서는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를 초청해 '해비탈에 선 아이들, 동행'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소영 기자

송화태 헌혈자, "70살까지 헌혈 이어갈 것"

지난 17일 충장로 헌혈의집서 500번째 헌혈 진행

지역 내 헌혈문화 확산 활동
불우이웃 돕기위한 1억원 기부
"도움을 준다는 건 즐거운 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내 건강한 혈액으로라도 힘든 이들을 도와야지요"

송화태(66·사진) 초록우산광주후원회 명예회장이 첫 헌혈을 한 1979년 20살을 회고하며 밝힌 그때의 마음 가짐이다. 젊은 시절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그는 건강한 혈액으로라도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송 회장은 지난 1979년 TV, 라디오 등 언론에서 혈액 부족으로 환자들이 수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헌혈을 시작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전혈은 두 달에 한 번, 성분헌혈은 2주에 한 번씩 혈액이 필요한 이름 모를 누군가의 생명 연장을 위해 헌혈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 1998년부터는 광주적십자혈액원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헌혈캠페인 등 지역 내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헌혈의집에서 대망의 500번째 헌혈을 진행했다.

송 회장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에 수혈받을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꼭 헌혈을 해야 한다"며 "그 환자들이 내 가족 , 친구라는 마음으로 헌혈을 하고 있다. 언젠가 우리가 나눈 생명나눔 헌혈이 결국 내 가족, 친구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의 남다른 '인도주의' 정신은 헌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1987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들을 후원했다. 아동학대 예방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이끌었다.

초록우산의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광주 1호로 가입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후원 회원을 2000명 이상 모집했다.

그는 "1:1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해온 아이들이 만 18세가 지나 자립을 하고 직장에 취직하는8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의 '나눔', '봉사', '인도주의' 정신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전 직장인 한국전력의 임직원들은 송 회장의 선한 영향력으로 매년 단체 헌혈에 적극 참여했고 사내 사회봉사단 리더로 활동하면서 350여명의 소년소녀가장들과 직원들의 자매결연이 맺어지도록 힘썼다.

송 회장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며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주변에서도 자극을 받아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노년의 봉사자는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할 것이고 젊은 친구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시와 함께 경렴정 복원 추진할 것"

광주향교 경렴정 탁광무 선생 학술대회

경렴정 복원을 위한 제2회 경렴정 학술대회가 19일 광주향교에서 열렸다.(사진)

겸령정은 고려 후기 14세기 말, 탁광무 선생이 낙향해 고향인 광주에 지은 정자다. 신돈 일파의 전횡에 맞서다 모함을 받아 낙향한 탁광무 선생은 '호남'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사로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호석 광주향교 전교,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탁수명 광산탁씨 대종회장 등이 참석해 탁광무 선생의 삶과 사상 등을 되살렸다.

오수열 전 조선대 학장을 좌장으로 조선대 김종 교수와 광주교육대 김덕진 교수, 광주유학대학 기세규 교수 등이 참가한 발제와 함께 한중문화교류회 강원구 박사와 한국학호남진흥원 안동교 박사, 전 광주대 탁인석 박사의 토론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10일 제1회 경렴정 학술대회를 개최했던 경렴정복원추진위원회는 이날 학술대회를 통해 광주시와 함께 경렴정을 복원할 계획이다.

경렴정 복원 추진위원회 김종 위원장은 "탁광무 선생은 '호남'과 우리지역에 '정자' 문화를 연 가장 '호남적'이면서 가장 '광주적'인 분"이라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자의 고장 광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호남 최초의 누정인 경렴정 복원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날씨와 생활

해뜸	해짐	달뜸	달짐
05:18	19:50	01:00	14:04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자료 :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23/27	무안·함평 장성·영광	23/27	목포·해남 신안·진도	23/26
순천·광양 곡성·구례	22/26	장흥·영암 강진·완도	22/27	여수·보성 고흥	22/25

전국 날씨

서울	23/25	대구	23/29
대전	23/27	제주	23/28

주간 날씨

21일(토)	22일(일)	23일(월)	24일(화)	25일(수)	26일(목)

물때

	밀물	썰물		밀물	썰물
흑산도	08:25 21:14	01:55 14:38	완도	04:40 17:41	11:33 23:59

생활 기상 정보

미세먼지	외출지수	우산지수
좋음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준비해보세요

전일 게시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알 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문의:(062)675-1391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실시 (062)526-3370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습관성 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광주 북구 유동) 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 (062)527-3400, 3403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